

울산시, 경제총조사 실시... “미래 경쟁력 진단”

한 달간 진행... 사업체 6만곳 대상 AI·로봇 활용 여부 등 산업변화 파악 “더 나은 지역경제 정책 만들어 갈 것”

울산시는 산업·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총조사는 지난해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와 함께 국가 기본 통계조사의 하나로 5년마다 실시된다.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투입 구조와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해 조사 결과를 지역 산업·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는 응답자의 방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PC·모바일),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대면 조사방식으로 병행 실시된다.

6월 한 달간 진행되는 온라인 조사는



울산시청 전경

각 사업체에 배부된 경제총조사 안내문 또는 조사원이 배부한 조사표에 기재된 참여번호를 이용해 경제총조사 누리집에서 참여 가능하다.

대면 조사는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본조사 기간인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 사업체 약 6만 곳으로 이 가운데 약 2000곳이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약 5만8000곳이 일반 사업체다.

조사 항목은 산업별 지정된 조사표 7종 총 38개 항목으로, 공통 항목 12개와 산업별 특성 항목 26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경제활동

변화 양상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조사항목을 추가했다.

주요 신규 조사항목은 산업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및 로봇 활용 여부, 지능형(스마트) 농장 및 공장 운영 여부, 외국인 종사자 수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300여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된다.

조사원들은 구·군별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으며, 국가데이터치의 표준화된 교육 과정에 따른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AI 및 로봇 활용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한 이번 경제총조사는 울산의 미래 경쟁력을 진단하는 의미있는 조사”라며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나은 지역경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1분기 잠정 합계출산율 1.06명

경북도의 잠정 합계출산율이 6년 만에 다시 1명대로 올라섰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경북도의 올해 1분기 잠정 합계출산율은 1.0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0명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9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늘었고, 혼인 건수는 793건으로 12% 증가했다. 조출생률도 4.6명으로 전년 대비 0.6명 높아졌다.

경북도는 만남 주선 프로그램과 출산 지원, K보듬 6000, 일자리편의점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확대 추진해 왔다. 또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과 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울산시

‘반구천의 암각화’ 주화 제작

울산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가 기념주화로 제작된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한 유적이다.

기념주화는 액면가 3만원으로 지름 40mm 크기의 구리·니켈 혼합 소재로 제작된다. 판매가격은 4만6000원이며 총 2000장 한정 발행돼 소장가치를 높였다.

예약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과 농협은행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이도식 기자

경남도, 함양 양파 등 ‘월간 경남픽’ 공개

밀양 초동연가길·진주 정원박람회 남해 마늘·창녕 산토끼밥상 등 선정

경남도는 ‘월간 경남픽(Pick)’의 6월 소재로 함양 양파·밀양 초동연가길·남해 마늘·진주 정원박람회·창녕 산토끼밥상 5개 소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월간 경남픽’은 경남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와 특산물, 명소 등을 시의성 있게 알리기 위해 경상남도 홍보협의회 참여 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월간 홍보 프로젝트다. 지난 5월에는 창원 미더덕, 거제 정글빵, 통영 박경리가념과 등을 소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6월 경남픽’으로 선정된 함양 양파는 청정 환경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 뛰어난 단맛이 일품이다.

또, ‘남해 마늘’은 남해의 해풍을 머금어 향이 깊은 특산물이고, ‘창녕 산토끼밥상’은 농촌 빈집을 개조한 창녕의 새로운 미식 공간으로, 이방우동 안식당 하싸라이스 내동반점의 4가지 맛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진주 정원박람회’는 자연과 예술이



6월 ‘월간 경남픽’.

/경남도

어우러진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지방정원 지정 기념으로 열리는 열리는 행사로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며, ‘밀양 초동연가길’에서는 초록빛 들판 사이로 피어난 꽃양귀비와 금계국을 감상하면서 거닐 수 있다. 특히 남해군과 진주시에서는 ‘6월 경남픽’ 선정 소재와 연계한 축제가 열린다.

경남도는 ‘6월 경남픽’을 바탕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하고, 매주 월요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경상남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남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전주시,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금 확대

5만원 추가... 총 19만7000원

전북 전주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주에너지환경부 국비사업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금이 기존 14만7000원에서 5만원 추가된 총 19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등유·LPG 사용 가구 확대 지원 결정에 이어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수급 세대 가운데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용 이력에서 최근 구입 연료가 등유·LPG이거나 전체 사용액의 50% 이상을 등유·LPG에 사용한 세대가 포함된다. 또 2024년도 사용

이력에서 마지막 구입 연료가 등유·LPG였거나 현재 주 난방 연료로 등유·LPG를 사용하는 가구도 지원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는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발급자는 선불카드에 추가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카드 분실이나 폐기 시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지원 확대에 따라 카드 배부 기간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사용 기간은 10월 25일까지로 연장된다. 이후에는 카드 사용이나 이월이 불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며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전북)=조계철 기자 chonho89@

부산시, 은하수산 등 명문향토기업 선정

23개사 신규 선정, 10개사 재인증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화신볼트 산업, 은하수산, 광명링크 등 오랜 기간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고용 창출과 인재 양성, 사회 공헌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부산 대표기업 33개사를 올해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명문향토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업력 20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올해 선정기업은 신규 23개사와 재인증 10개사로, 이번 선정을 통해 부산시 명문향

토기업은 총 87개사로 확대됐다.

올해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향토기업’ 명칭을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으로 변경하고, 업력 기준을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선정기업에는 인준 현판과 인증서가 수여되며, 정책자금 지원과 지방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부산도시가스요금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부산문화회관·시민회관·영화대전당·시 전문 체육시설·동백상회와 민간 문화관광 플랫폼인 ‘홀릭섬’ 제휴시설, ‘텐퍼센트커피’ 등 문화·관광·여가 분야 이용 혜택도 주어진다.

/부산=이도식 기자

대구시 “대구꽃박람회 놀러오세요”

4일 개막... 소설 ‘비밀의 정원’ 모티브

대구시는 국내 최대 실내 플라워쇼인 제17회 대구꽃박람회를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대구엑스코(EXCO)에서 제17회 대구꽃박람회를 개최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꽃과 정원이 주는 치유와 화해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성장과 치유를 상징하는 소설 ‘비밀의 정원(The Secret Garden)’을 모티브로 대형 화훼조성관과 예술성 높은 작품들로 전시장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전시는 이번 박람회의 핵심인 주제관을 비롯해 청라상관(장작 경연 10개 팀), 일반조성관(프랑스 초청관, 한국전통 꽃꽂이관, 영도벨벳관 등), 지자체관(경북도, 고양국제꽃박람회 등), 동시 개최 행사(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꽃해설사와 함



제17회 대구꽃박람회 현장.

/뉴시스

께하는 가이드 투어, 캘리그래피·테라리움·꽃바구니 체험, SNS 해시태그 및 구매 인증 이벤트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구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대구꽃박람회는 세계적 명장들의 감각과 우리 전통 화훼의 미학, 지역 대표 산업 기술이 융합된 뜻깊은 문화 행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엑스코를 찾아 꽃이 주는 치유의 에너지와 예술의 감동을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김준한 기자 kih9@

영양고추유통공사

항공물류·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

영양고추유통공사와 경운대학교는 지난 29일 ‘스마트 항공물류 및 농식품 제조·유통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학과 공사는 경북 관내 청년들이 지역 산업계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 고질적인 지역 청년 유출 문제를 막고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